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음 3월 12일) 제15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국민안전의 날 시민안전 다짐대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 시민안전 다짐대회가 지난 15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조봉업 부시장을 비롯한 경찰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전북도 관광객 유치 활발

### 中 산동성 등과 문화교류로 관광산업에 큰 도움 도 "월 1~2회로 나눠 올해 4000명 가량 유치할 것"

전북도의 문화교류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에서 100명의 문화교류단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을 방문했다. 이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는 중국 남경시 광장무 동호회 회원 195명이 전북을 찾는다. 도는 이들 교류단의 직접적인 여행경비 지출만 약 3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북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방문한 산동성 문화교류단은 석도해체를 통해 군산항으로 입국한 후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전북지역 어르신들과 교류행사를 가진 후 군산·부안·전주 한옥마을 등을 탐방하며 전북을 관광했다.

남경시 광장무 회원들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북경 및 남경 주요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를 계기로 성사됐다. 그들은 15일 군산에 도

착해 군산 은파유원지 감상 후 전주 꽃밭장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그들은 그들의 문화인 광장무를 전북도민에게 선보이는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중국 남경시 광장무 동호회 회원들을 꾸준히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남경시에는 광장무 동호회가 아파트 단지별로 조성돼 관광객 유치 개발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도의 분석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는 월 1~2회로 나눠 올해 약 4천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은 "문화교류 특히 실버교류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방문단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실버교류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e스포츠 페스티벌 전북 홍보 효과 '특목'

최근 막을 내린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이 전북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전주시가 주최한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이 경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막을 내렸다. 이 페스티벌에는 관람객 등을 포함해 약 1만4000명의 매니아들이 현장을 찾아 게임을 생생하게 보고 즐겼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아닌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한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정규시즌은 유료입장에도 불구하고 5800여명이 경기장을 찾기도 했다.

15전 8선승으로 운영된 '하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배틀'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8대 2로 승리했는데, 대회가 진행 되는 동안 경기가 송출된 중국 또유tv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5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밑거름으로 전북에서 e스포츠가 지속적으로 기획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 매일 INDEX

3면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에게 묻다

5면 전주시, 향토기업기운 충전 나서

## 과거처럼 '정치독식' 안돼

### Report 20대 총선 이후... ②기득권 안주 말아야

4·13 총선은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전이었다. 특히 새누리당의 등원과 국민의당의 압승 등 기적과 같은 이변이 속출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락으로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하는 상황으로 413 총선이 남긴 의미는 적지 않다. 4·13 총선 이후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국민의당 당선인 7명 중 대부분은 더민주 출신 당 내에서 많은 혜택 받아 유명세 얻어 당선 지역정치 잠식 폐해 반복되면 지지는 무너질 듯

▲이런 세력 균형 맞춘 절묘한 선택

총선 결과 전북 10석 중 국민의당이 7석, 더민주는 2석에 그쳤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역 지지는 정당 득표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42.7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은 반면 더민주는 32.28%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곧 지역정치를 독점에 왔던 더민주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심판'이라는 것이다.

전북이 국민의당에 물꼬를 주었다 해서 지역구 후보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의당 소속 당선인 상당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이들의 정치적 성장은 더민주당

이 주는 '젓과 못을 먹고 입으며 지금까지 이른 당선인들이다.

전통야당의 적통을 통해 정치적 이력을 더한 인물들이란 뜻이다.

무엇보다 전북만 놓고 보면 주체만 바뀌었을 뿐 특정정당이 독식한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득권이 더민주당과 같이 지역정치를 잠식하는 폐해가 반복될 경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민에게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도구 이상 아니다"라는 한 정치 평론가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새누리 '한사람 더 당선됐으면

더 좋았을걸..."

정운천 후보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축적분위기가다.

하지만 전북도당 입장에서 전북의 야권 분열로 수 십년 만에 찾아온 천운의 '호기' 입을 감안하면 아쉬움을 수 밖에 없는 총선이다.

지역구 1명과 전국비례 1명 등 총 2명의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에서 배출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도당의 이번 총선의 목적은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단 한번의 승부다.

모든 선거예산과 정책간담회 등 도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부어 결국 정 후보가 당선되는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중앙당이 배려하는 전북 비례대표 의원을 가져오지 못한 점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속상한 기억으로 남는다.

현재 도당이 발표한 전북 출신 비례대표는 3명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무늬만 걸친 인물'이 대부분이다.

수십여 년 간 여당 속 야당 인물로 고생한 도당 현장정치인에게 전북 몫의 비례대표 티켓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지 못한 것이다.

1명의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 것과 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도당 관계자는 "전북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59군데 '리턴매치' 도 더민주 '완승'

제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59군데에서 이뤄진 '리턴매치' 역시 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총 29군데 '리턴매치' 지역 중 새누리당이 당선된 곳은 7군데에 불과했다.

지난 15일 모 언론사가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리턴매치 지역은 총 59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곳, 인천 2곳, 부산 6곳, 대전 4곳, 광주 1곳, 울산 3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2곳, 경남 3곳, 전남 1

곳, 강원 2곳 등이었다. 이중 새누리당 당선인을 배출한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4곳, 인천 2곳, 부산 3곳, 대전 2곳, 울산 3곳, 충북 2곳, 경북 2곳, 경남 3곳, 강원 1곳에 그쳤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대문을 현역 3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3번째 맞대결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당선인이 9%p 격차로 정 의원을 누르고 승기를 잡았다.

송파병에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을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5%p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당선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분당을에서는

2번째 대결을 벌인 더민주 김병욱 당선인이 현역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에게 패배를 안겼다.

아평(野鵬)이 강하게 불었던 '여당 텃밭' 부산에서는 6곳 중 3곳을 더민주가 가져갔다. 더민주 박재호(남을) 김영현(진갑) 전제수(북강서갑) 당선인은 각각 현역 서용호 나성린 박민식 의원을 무너뜨렸다.

충남 청주·상당에서는 더민주 김종민 당선인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6선 현역 이인제 의원과의 2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강원 원주에서는 현역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더민주 송기현 당선인에게 0.5%p 격차로 패배했다.

/이성주기자

**보복운전, 도로위의 폭력행위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와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라도 한번쯤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보복운전은 서로를 지키는 배려운전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